

예술로 모색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공존'

기고



홍경한
미술평론가

ACC 레지던시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 전시 리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의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 (2022.12.16.~2023.2.5)는 '팬데믹'의 경험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대중재난 앞에 놓인 인류에 적합한 휴머니즘을 살피는 전시다.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오늘날, 현존으로서의 인간을 넘어서 '신인류(Post human)'의 세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한 기획이다. 전시의 키워드는 '감각과 신체' '인간과 기술의 연결' '미래예측과 공생'이다. 공통적으로 '공존 방식'의 문제를 관통한다.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 기술의 역사와 예술의 역사가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는 동시대에서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어떻게 상호 호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태적 시선이 녹아있다.

출품작은 모두 20여 점. 지난해 9월 주제 공모를 통해 선발한 '2022년 ACC 레지던시' 참여자들이 약 4개월간 ACC와 의 프로덕션 과정을 거쳐 내놓은 실험적 결과물이다. 아트&테크, 비주얼아트, 다이어로그, 디자인, 시어터 등 장르와 분야를 망라하는 이들의 작업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에 맞게 인간에 의해 제한되고 대상화된 존재들(AI, 인공지능체, 동물, 자연 등)을

끌어들여 새로운 교감을 도모하는 방식을 띤다.

대표작은 공간·인류·기계 영역의 한계를 허물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로드리고 마린 바리세뇨'의 <한계의 전환: 상상의 집 시리즈>(2022)를 비롯해, 건축·환경·집단 사회 간의 절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동기화 된 이상적 미래도시를 초현실적으로 설계한 '브이 에이 앤 에이'의 <플라네토투스>(2022), 전쟁·민주항쟁을 경험한 이들의 기억을 가상현실(VR)로 기록하며 삶과 죽음, 실존적 의미를 추적한 '오뎃 아(().(:))'의 <고스트유토피아>(2022) 등이다. 이밖에도 근현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스트 휴먼 메타 데이터를 가변설치 작업으로 드러냄으로써 금지된 정보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살펴본 가수정 작가의 <급/서 이미지 라이브러리: 망가>(2022) 등도 주요 작품으로 꼽힌다. 이밖의 <인류원, 고유모선과 대기모선>(2022), 유승아의 <취약성을 공유하는 포스트 휴먼, 한국 퍼포먼스 아트 속 괴물과 사이보그>(2022)와 같은 작품도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들 작업은 하나같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경계를 살피고 포스트 휴먼의 윤리적 성찰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인간과 기술 간 관계를 재설정하거나 미래의 인간·사회·자연·생명 등 새로운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면적 조형으로 그려낸다. 특히 초연결 시대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함께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각자의 언어로 설명하는 장면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결과적으로 당대 인류 앞에 놓인 문제를 다층적으로 해석하며 자기중심적

인간의 재고와 타 존재에 대한 고찰에 방점을 둔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는 미래 예술을 향한 갈망과 고정된 예술 언어에 저항하는 태도까지 아우른 인문학적 시도와 다름 아니다. 그리고 시각·과학·디자인·생물학·지리학·역사·철학·인문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가 만나 폭넓게 교류하면서 대화하는 무대였다는 것만으로도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의 '의의'는 완성된다.

한편 통상의 레지던시들이 고만고만한 프로그램으로 '한계'를 자각하는 현재, 기술과 인지 간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 지연'을 탐구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ACC 레지던시'의 여러 실험적인 몸짓은 '레지던시 4.0'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점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예술의 창의성과 기술을 융합한 창·제작·연구 플랫폼을 운영해온 ACC는 물리적 지원 외에도 초학제 연구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단순한 작가지원의 성격을 벗어나 다제학문의 협동·협업 관계 설정을 통해 새로운 시시각적 어젠다(agenda)를 도출하려는 게 목적이다. 올해는 학제 간 교류와 소통 확대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을 전개한다. 바로 '듣기의 미래(Future of Listening)'를 주제로 한 'ACC 사운드 아트랩(ACC소리예술연구소)'이다. 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다년(多年) 소리 연구에 해당하는 '듣기의 미래'는 데이터의 청각화와 같이 '듣기'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청각예술의 내일을 상상함으로써 청각에 관한 인식과 가치를 찾아내기 위한 흥미로운 시도다.

社說

이정선호 광주교육 청사진 연착륙 기대

소통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앞으로 광주 교육은 기초학력 강화와 실력 향상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은 '다양한 실력이 광주교육의 미래'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한 아이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다듬어온 '광주 교육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2023학년도 광주교육의 유·초·중·고·특수 학급별 정책을 설명했다. 유치원은 돌봄 기능이 강화된다. 공립유치원은 방학 중 오후 7시까지 운영 확대를 위해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놀이배움터를 운영한다. 기초학력 강화에 교육 목표를 둔 초등학교 경우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배치되고 광주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1학년 2학기부터 지필평가가 실시된다. 일반고교는 스터디룸 설치와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 양성 등 학생들의 다양

한 실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처럼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광주교육 수장의 광주 공교육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이날 언론에 공개한 이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관계자간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안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완성형'이거나 '완전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현재 교육부가 지역대학 예산집행 권한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 등과 같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다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이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정책들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 차질이 빚어지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자신의 공약2호인 방학중 전면무상급식 방안을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더욱 그렇다.

사증면제제도, 불법체류 악용 안된다

태국 관광객 입국 후 잇단 잠적

전세기를 타고 무안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제도'를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비자면제가 일부 부작용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까 걱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내린 태국인 관광객 10명이 입국 수속 직후 일행에서 이탈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무안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린 태국인 13명이 무단 이탈한 뒤 출국 예정일인 5일까지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전세기 운항은 지난 달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해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업 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태국 관광객

2400여 명이 3월 말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본다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태국과 우리나라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도 실시된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의 대책이 불법체류의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 제도는 전남관광의 마중물이다. 지난해 8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건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와 관계 당국은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확실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입국자의 동선 파악과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탈한 입국자의 소재를 하루 빨리 파악해 출·입국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안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5000여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가 최대 2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은 시리아 하마에서 민방위대와 보안군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발견한 희생자 시신을 옮기고 있다. **하마=AP/뉴시스**

서석대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어.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선물로 탱크를 받을 거야." 1997년 로베르토 베니니가 제작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때로는 거짓말이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다. 2차 대전 말기, 아들 조슈아와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귀도.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귀도는 아들에게 '게임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태연하게 병정 놀이를 하듯 사형장을 향해 걸어간다. 귀도의 거짓말로 조슈아는 밝고 귀염둥이 자란다. 지난 2019년 독일 철학자 베티나 슈탕네트가 쓴 '거짓말 읽는 법'은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다듬어 온 거짓말의 정의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가 말한 거짓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이다. 말과 실천을 분리할 수 있는 인간만이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짓말쟁이에 대해서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한 거짓말 솜씨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엘리트'라고 정의한다. '거짓말의 힘은 그가 가진 지식에서 나온다'는 결론도 의외다.

거짓말은 인류에게 숙명이다. 종류도 여러가지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아들을 위해 귀도가 한 거짓말은 '선의를 거짓말'이다. '가식의 거짓말'은 아침처럼 남을 즐겁게 해주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반사적 이익을 생각하는 거짓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의 거짓말'도 있다. 특히 악의적인 거짓말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지식인의 전유물이기도 하다. '거짓말 읽는 법'에서 슈탕네트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지식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정치권 등이 사건의 진실을 놓고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소설'이라고 한데 대해 여당은 '다큐멘터리'라며 공세를 더하고 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하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어느 것이 소설이고 어느 것이 다큐일까. 지금의 상황에서 저런 거짓말을 과연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일까. '거짓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슈탕네트의 주장만 쫓아도 우리는 우울한 하루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용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